

2022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

메시지 16
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
실재의 영으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를 배움

성경: 요 14:17, 15:26, 16:13, 요일 5:6, 엡 4:20-21, 빌 3:10

I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우리는 실재의 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— 요 14:17, 15:26, 16:13.

- A. 요한의 글들은 그 영께서 실재의 영이심을 계시한다 — 요 14:17, 15:26, 16:13, 요일 5:6.
- B. 그 영을 실재의 영이라 하는 것은 아들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과 아들의 모든 어떠하심이 그 영 안에서 실재화되기 때문이다 — 요 16:13.
- C. 실재의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시다. 즉, 그분은 삼일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그분이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 — 요 15:26.
- D. 그 영은 그리스도와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시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은 실재라 불리신다 — 요일 5:6.
- E. 실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신다 — 요 16:13.
 - 1. 실재의 영은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과 모든 신성한 것들의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신다 — 고후 13:14.
 - 2. 요한복음 16장 13절의 '실재'는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 영께서 아들에게서 받으신 것과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으신 것을 가리킨다.
- F. 실재의 영께서 이 실재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심으로 우리를 신성한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때, 신성한 실재 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— 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된다 — 엡 3:14-17 상.
- G. 실재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재가 우리 안에 거한다 — 요 14:6, 17.
 - 1. 실재의 영 안에 있는 것만이 영적 실재이다 — 요 16:13.
 - 2. 모든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실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. 그런 후에야 그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이고 살아 있고 유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— 요 14:6, 17.
- H. 실재의 영은 우리의 실재와 생명과 생활이 되어야 하며, 이 실재는 모든 것과 모든 면에서 우리의 온 존재에 적용되어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우리의 실재가 되어야 한다 — 요삼 3.

II.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바울은 실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실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한다.

- A. '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'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 — 마 7:28-8:3, 막 1:14-15, 눅 8:4-18, 요 4:34.
 - 1.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 안에 항상 실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— 요 14:6.
 - 2. 예수님 안에, 즉 그분의 인간 생활과 매일의 행함에 — 주님께서 목수로서 일하실 때든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든 — 항상 실재가 있었다 — 요 1:14, 17.
- B.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의 대조를 볼 수 있다.
 - 1. 예수님의 인간 생활 안에는 헛된 것이 없었고 실재가 있었다 — 요 14:6.
 - 2. 경건하지 않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은 허무 중의 허무뿐이다 — 전 1:2, 시 39:4-6 상.
- C. 사람 예수님의 일상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실재이다 — 요 1:14.
 - 1. 그분이 인간 생활 안에서 하신 모든 것은 실재였다 — 요 1:17.
 - 2. 그분의 말씀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— 비교 벰전 2:22.

3. 민족들과 타락한 사람의 경건하지 않은 생활 안에는 허무가 있지만 예수님의 경건한 삶에는 실재가 있다 — 엡 4:17, 21.
 4.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사셨다 — 요 17:4.
 5. 그분의 생활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.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는 이것을 의미한다 — 요 5:17, 36.
 6.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분 안에서 가르침 받는 이들인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분에게 배운다 — 골 3:4, 엡 4:21.
 7. 사복음서는 주님의 일상 생활의 자세한 모든 것을 계시하는데, 그 안에는 허무가 없고 실재만 있다 — 요 1:14, 17.
 8. 사복음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 안에 있는 실재와 그분 주위에 있던 반대자들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의 생활 안에 있는 허무의 큰 대조를 본다 — 마 23:1-36.
- D. 그리스도는 생명이실 뿐 아니라 분이시다.
1.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 그분은 사복음서에 것처럼 본을 세우셨다 — 빌 2:6-8.
 2.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— 고전 15:3-4, 45 하.
 3.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본에 따라 그분에게 배운다 — 마 11:29, 요 11:25.

III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이라는 틀 안에 놓여지는 것,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— 빌 3:10, 롬 8:29.

- A. 이 땅에서의 삼십삼 년 반 동안 주 예수님은 틀, 본을 세우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본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 — 빌 3:10, 롬 9:20.
1. 사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주 예수님의 삶은 실재의 삶이었다.
 2. 실재는 빛의 비침이다 — 마 4:16, 눅 1:78-79, 요 1:5, 7-9.
 - a. 빛은 근원이고 실재는 그 표현이다 — 요 1:4, 14, 17.
 - b.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. 이것은 그분이 빛이신 하나님의 비침이라는 의미이다 — 히 1:3, 요 8:12.
 - c.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 빛 비춤이 있었으므로 그분의 삶은 실재의 삶, 하나님 자신이 비치는 삶이었다 — 요 1:9, 요일 2:8.
 - d. 그러한 실재의 삶은 하나님의 표현이었다.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말한다 — 엡 4:21.
 - e.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틀, 곧 실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 — 빌 3:10.
- B. 그리스도께서는 이 틀을 세우신 후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. 그러한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— 요 11:25, 고전 15:45 하, 골 3:4.
1.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, (반죽을 틀 안에 넣는 것처럼)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이신 그분 안으로 넣으신다 — 비교 고전 1:30, 고후 5:17, 롬 8:1.
 2. 그 틀 안에 넣어짐으로 우리는 그 틀을 배운다 — 빌 3:10, 엡 4:20-21.
 - a.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넣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— 엡 4:20.
 - b.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신다. 다른 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 — 요 11:25, 골 3:4.
 - c.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 안에 넣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 틀에 따라 그분에 의해 살 수 있다.
 - d.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.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— 고전 1:30, 골 3:4, 엡 4:20-21.